

기록물 기술의 표준화

서혜란*

1. 서문
2. 기록물 기술 표준화의 배경
3. 기록물 기술에 관한 국제 표준
4. 기록물 기술 표준에 대한 비판과 대안

1. 서문

기록관리의 목적 중 하나는 기록물에 포함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용자로서는, 심지어 기록관리 전문가조차도, 기록관에 소장된 방대한 기록자료 가운데 자신의 정보요구를 충족시켜 줄 기록물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때 필요한 것이 검색도구(finding aids)¹⁾이며 기술(description)²⁾이다. 다양한 검색도구를 통해 적절한 기

* 서혜란 : 신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주요논저 : 「한국의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 현황과 활성화 전략」 『도서관학 논집』 22집, 한국도서관정보학회, 1995 ; 「대학종합평가인정제 실시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0권 1호, 한국문헌정보학회, 1996 ; 「21세기 공공도서관 발전방향 및 모델개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1권 2호, 한국문헌정보학회, 1997

술이 제공되지 못한다면 비록 역사적으로 아주 가치 있고 잘 보존된 기록물일지라도 이용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무가치한 것이 된다.

기록관리 전문가들은 오래 전부터 여러 종류의 검색도구를 작성하고 거기에 답을 기술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록물 기술은 기원전 15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미국에서는 1888년에 최초의 기술규칙이 만들어졌다.³⁾ 도서관계가 일찍부터 목록규칙의 표준화를 시도해 온 반면에 세계 각국의 기록관들은 각자 독자적인 기술규칙을 만들어서 사용했다. 도서관자료와 달리 기록관에 소장된 기록물들은 너무 개별적이고 특수하기 때문에 표준화된 기술규칙을 적용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변하기 시작했다. 미국⁴⁾과 캐나다⁵⁾ 등 북미 지역을 비롯해서 영국⁶⁾ 등 유럽 각국과 호주⁷⁾ 같은 국가에

- 1) 기록관이 소장 기록물에 대한 관리상 또는 내용상 통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입수하는 모든 기술 또는 참조 수단을 포괄하는 가장 광범위한 용어
- 2) 기록물을 식별하게 해주고 그 기록물을 생산한 경위와 시스템을 설명해주는 정보를 확보, 대조, 분석 및 조직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의 기술단위와 그것을 구성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
- 3) Wendy Duff, "Discovering Common Missions or Diverging Goals : the State of Archival Descriptive Standards i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Information & Library Review Vol. 30, 1998, p.227
- 4) 세 가지 종류의 매체, 즉 문자자료, 그래픽자료, 동영상자료에 대해 독립된 국가 표준이 있다. S. L. Hensen, *Archives, Personal Papers and Manuscripts : a Cataloging Manual for Archival Repositories, Historical Societies and Manuscripts Libraries*, 2nd ed., Chicago :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1989 ; E. Betz, *Graphic Materials : Rules for Describing Original Items and Historical Collections*, Washington, D.C. : Library of Congress, 1982 ; W. White-Hensen, *Archival Moving Image Materials : a Cataloging Manual*, Washington, D.C. : Library of Congress, 1984
- 5) Bureau of Canadian Archivist. Planning Committee on Descriptive Standards, *Rules for Archival Description*, Ottawa : The Bureau, 1990

서 기록물의 기술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표준을 제정하게 되었고, 국제기록관리기관협의체(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ICA)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노력에 의해 국제적 차원의 기록물 기술 표준인 General 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Description, ISAD(G)⁸⁾와 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Authority Record for Corporate Bodies, Persons and Families, ISAAR(CPF)⁹⁾가 1993년과 1995년에 각각 채택되었다.

기록관리분야 전반에 관한 이론적 및 실무적 경험 축적이 취약한 한국의 기록관리계이고 보니 기록물 기술과 관련해서도 아직 이렇다할 이론적 체계를 갖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 표준은 물론이고 개별 기록관 차원의 기술 규칙들도 확립되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정부기록보존소의 경우 운영세칙 제2장에서 기록물의 유형별 목록관리에 관해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는 정도이다. 단편적으로나마 여기에 소개하는 기록물 기술의 국제적 표준화 동향이 앞으로 이 분야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 6) M. Cook & K. Grant, *A Manual of Archival Description*, 2nd ed., London : Gower, 1990
- 7) J. Ellis, ed., *Keeping Archives*, 2nd ed., Sydney : Australian Society of Archivists, 1993
- 8)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ISAD(G) : General 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Description, Adopted by the Ad Hoc Commission on Descriptive Standards, Stockholm, Sweden, 21-23 January 1993, Ottawa : The Secretariat of the Commission, 1994
[http://data1.archives.ca/ica/cds/isad\(g\)e.html](http://data1.archives.ca/ica/cds/isad(g)e.html)
- 9)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ISAAR(CPF) : 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Authority Record for Corporate Bodies, Persons and Families, Prepared by the Ad Hoc Commission on Descriptive Standards, Paris, France, 15-20 November 1995, Ottawa : The Secretariat of the Commission, 1996
http://data1.archives.ca/ica/cds/isaar_e.html

2. 기록물 기술 표준화의 배경

기록물의 특성 때문에 개별 기록관 차원을 넘어서는 기록물 기술의 표준화에 소극적이던 기록관리 전문가들이 1980년대와 90년대에 걸쳐 국가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 기록물 기술의 표준화에 노력하게 된 것은 컴퓨터의 등장에 기인한다. 기록관리를 비롯한 정보관리분야에서 컴퓨터의 활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공간을 초월한 커뮤니케이션과 정보교환이 쉬워진 것이다. 그것은 ISAD(G)에서 천명한 다음과 같은 기록물 기술 표준작성의 목적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 (1) 일관되고 적절하며 자명한 기술을 작성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2) 기록 자료에 관한 정보의 검색과 교환을 촉진시킨다.
- (3) 전거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한다.
- (4) 다른 기록관들이 작성한 기술들을 수렴해 통합정보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가능케 한다.

국제적인 기록물 기술 표준화의 주요 목적이 협력적 데이터 교환임을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다.

이미 국가 표준 서지 기술의 관행에 익숙해 있던 도서관계에서도 1970년대부터 컴퓨터를 활용한 서지데이터의 국제적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의 주도하에 각 매체별로 국제표준서지기술(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ISBD)¹⁰⁾을 제정하

10) 매체별로 출판된 일련의 기술 표준 가운데 기록물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ISBD(NBM)이다.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for Non-Book Materials. (London : IFLA, 1977)

고 각국에 이의 채택을 권고했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서,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전세계 주요국들은 기존의 국가 표준 목록규칙들을 개정한 바 있다. ISAD(G)는 ISBD의 영향을 받아 상호교환이 가능한 시스템 설계의 기초 역할을 하려고 의도했던 것이다.¹¹⁾

목록 정보의 상호교환과 관련해서 도서관계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1968년 미국의 의회도서관은 서지정보의 교환을 위한 포맷인 기계가독형목록(Machine Readable Cataloging, MARC)¹²⁾들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기록관들이 기록물 기술 국가표준인 APPM을 개발한 동기는 MARC 포맷을 이용해서 소장 기록물에 대한 기술 정보를 대규모 온라인 서지유틸리티인 연구도서관 정보네트워크(Research Libraries Information Network, RLIN)와 공유하기 위해서였다.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기록관연맹(Canadian Council of Archives, CCA)은 국가적 기록물 기술 표준인 RAD가 확립됨에 따라 후속 중점 사업으로 '캐나다 기록물 정보 네트워크(Canadian Archival Information Network, CAIN)'의 개발을 꼽았다. CCA는 보고서에서 "캐나다 기록관의 소장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국가적 및 국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데 RAD가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CAIN은 이런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¹³⁾

기록관리 전문가들이 이제까지의 관행을 버리고 기록물 기술을 표준화

11) Michael Cook, "The International Description Standards : an Interim Report"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Vol. 16. No. 1, 1995, p.20

12) 미국의 기록물용 MARC 포맷은 USMARC AMC(United States Machine Readable Cataloging Rules for Archives and Manuscripts Control)이다. 이것은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와 Library of Congress에 의해 각각 1982년 말과 1983년 초에 승인을 받았다.

13) Canadian Council of Archives. Information Highway Task Force, Raising CAIN : Building Canada's Archival Information Network, November 15, 1997
http://www.cdncouncilarchives.ca/rai_cain.html

하게 된 것은 기록관들이 보다 큰 정보시스템의 일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컴퓨터 네트워크화된 정보 환경 속에서 기록물 이용자들은 기록관뿐만 아니라 도서관이나 박물관 등을 포함하는 보다 큰 범위의 정보자원들을 탐색할 수 있는 정보 서비스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3. 기록물 기술에 관한 국제 표준

1) ISAD(G)

(1) 작성과정

ICA는 기록물 기술에 대한 국제적 표준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90년에 기술표준위원회(Ad Hoc Commission on Descriptive Standards, ICA/CDS)를 구성했다. 영국의 크리스포터 J. 키칭(Christopher J. Kitching)을 위원장으로 하는 ICA/CDS는 캐나다, 프랑스, 스웨덴, 포르투갈, 스페인, 호주, 미국, 말레이시아에서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무국은 캐나다가 맡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해에 ICA/CDS는 일반규칙 초안 작성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회가 작성한 ISAD(G) 초안은 1992년 1월 마드리드에서 열린 ICA/CDS 회의에서 승인을 받았다. 이 초안은 그 해 2월에는 논평을 받기 위해 세계 각국에 회람되었고, 9월에는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2차 국제 기록관총회(International Congress on Archives)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었다. 1993년 1월 스톡홀름에서 다시 모인 ICA/CDS는 이런 과정을 통해 얻은 각국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채택했다. 이렇게 확정된 ISAD(G)는 사무국에 의해 1994년에 출판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유네스

코의 재정지원을 받았다.

(2) 구성

ISAD(G)는 표제에서 드러나는 그대로 일반 규칙(general rules)의 성격을 갖는다. 즉 기술단위(unit of description)¹⁴⁾의 성격이나 범위에 상관없이 모든 기록물의 기술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표준이다. ICA/CDS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주요 국가의 국가 표준처럼 매체의 종류별로 ISAD를 개발하려던 원래의 생각을 버리고 모든 매체에 기록된 기록물을 포괄하는 단일 표준을 지향하기로 결정했다.

ISAD(G)는 기록물을 기술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26개의 기술요소를 정하고 이것들을 다음과 같이 6개의 사항으로 구분하고 있다.

1. 식별사항(Identity Statement Area) : 기술단위를 식별하는데 필수적인 정보
2. 배경사항(Context Area) : 기술단위의 출처와 관할에 관한 정보
3. 내용 및 조직사항(Content and Structure Area) : 기술단위의 주제와 배열에 관한 정보
4. 접근 및 이용조건사항(Condition of Access and Use Area) : 기술단위의 이용가능성에 관한 정보
5. 관련자료사항(Allied Materials Area) : 기술단위와 중요한 관련성을 가진 다른 자료에 관한 정보
6. 주기사항(Note Area) : 위의 어떤 사항에도 포함시킬 수 없는 정보와 특수 정보

각각의 기술 요소에 대해서는 명칭, 그 요소를 기술에 포함시키는 목적,

14) 물리적 형태와 관계없이 단일 기술의 기초가 되는 하나의 문서 또는 일단의 문서들

그 요소에 적용되는 일반 규칙, 규칙의 적용을 보여주는 사례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

26개의 기술요소들 가운데 기술정보의 국제 교환에 필수적인 것으로 지정된 요소는 식별사항에 속하는 모든 요소들 즉 참조코드, 제목, 작성 또는 접수일자, 기술수준(level of description)¹⁵⁾, 기술단위의 종류와 수량이다. 다만 제목에 작성자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작성자의 이름을 표시하고 있는 요소가 포함된다.

(3) 기본 원칙

ICA/CDS는 구체적으로 기술의 표준안을 마련하기에 앞서서 인정되어야 할 몇 가지 기본적 원칙 또는 공통적 전제조건을 규정한 소위 ‘마드리드 원칙’¹⁶⁾을 채택했다. 이 원칙들은 혁신적이기보다는 오랫동안 기록관리실무를 통해 확립되어 온 것들이다. ‘마드리드 원칙’은 ISAD(G)에서 ‘다계층기술(multilevel description)’로 구체화되어 있다.

다계층기술은 ISAD(G)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¹⁷⁾ 다계층기술의 개념은 도서관자료는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단위로 기술되는데 비해 기록물은 집단적 단위로 기술된다는 기록관리의 실무적 관행에서 비롯되었다. 이때 집단적 단위는 행정기관의 구조(외적 구조)와 기록물이 배열된 방식(내적 구조)에 따라 계층적 구조를 가지게 된다. 다계층기술이란 가장 넓고 일반적인 수준 즉 가장 큰 기록물의 집단적 단위에서 기록물의 기술을 시작해서 점점 하위 계층으로 나아가면서 기술하는 것이다.¹⁸⁾ 다계층기술

15) 기록물 집합체의 계층구조상에서 해당 기술단위의 위치

16)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Ad Hoc Commission on Archival Description, “Statement of Principles Regarding Archival Description” *Archivaria* Vol. 34, 1992, pp.8-16

17) Cook, “The International Description Standards”, p.21

18) Jeff O’Brien, “Basic RAD” <http://www.usask.ca/archives/rad/>

에 관해 ISAD(G)가 규정한 원칙은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 기술은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¹⁹⁾ 둘째, 기술은 해당 기술수준에 관련된 데이터만을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하나의 집합체에 속하는 서로 다른 수준의 기술들은 함께 연계시켜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넷째, 어떤 기록물 집합체의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보는 그것이 해당되는 최상위 계층에서 기술하고, 상위계층의 기술에서 제공된 정보는 하위계층에서 반복하지 않음으로써 정보의 중복을 피한다.

2) ISAAR(CPF)

(1) 작성과정

ISAD(G) 제정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전세계의 기록관리 전문가들은 기록물 기술의 의미를 새삼 인식하게 되었고, 기록물 기술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서도 특히 기록물의 작성배경과 관련된 요소들의 중요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ICA/CDS는 ISAD(G)에서 이미 배경사항의 기술이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작성과 관련된 정보를 따로

19) 기록물의 계층구조를 어떻게 결정하는가는 기록관리계에서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다. ISAD(G)에서는 가장 상위 계층의 기록물집단을 fonds(특정 개인, 가문 또는 단체가 그 활동과 기능 수행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작성, 수집, 이용한 문서 전체. 영어 group에 해당하는 프랑스어)로 하고 그 하위계층을 sub-fonds(기록물 출처기관의 행정적 조직구분이나 자료자체의 지리적, 시대적, 기능적 구분에 맞추어 관련된 문서들을 포괄하는 fonds의 하위 구분), series(단일한 파일링 시스템에 따라 배열된 문서들 또는 동일한 수집이나 파일링 과정, 동일한 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졌거나 어떤 특정 형태를 갖고 있거나 그 생산, 입수, 이용에서 발생한 그 밖의 관계 때문에 하나의 단위로 유지되는 문서들. record series와 동의어), file(동일한 주제, 활동 또는 업무처리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관리 과정에서 함께 묶여지는 하나의 조직화된 문서 단위), item(내용적으로 개별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록물 단위. 예를 들면 한 건의 편지, 메모, 보고서, 사진, 음반)의 순서로 규정했다.

다루면서 이를 기록물 기술을 구성하는 나머지 정보들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ISAD(G) 소위원회는 접근점(access point)²⁰⁾의 형식과 내용을 통제하는데 필요한 표준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3년 1월 스톡홀름에 모인 ICA/CDS는 기록물 기술에서 접근점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회는 캐나다와 미국에서 진행중인 관련 연구와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IFLA에 의해 만들어진 도서관계의 국제 표준들을 참조해서 접근점의 전자통제에 관한 국제표준초안을 개발했다. 이 초안을 놓고 ICA/CDS는 1994년 10월의 헤이그 회의에서 논의와 수정을 거친 뒤 세계 각국에 회람시켜 논평을 구했다. 이렇게 범세계적 검토를 통해 수정된 ISAAR(CPF)는 1995년 11월 파리에서 열린 ICA/CDS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사무국은 ISAAR(CPF)를 1996년에 출판했다. 이 프로젝트도 역시 유네스코의 재정지원을 받았다.

(2) 구성

ISAAR(CPF)의 주요 목적은 기록물 전거기록(archival authority record)²¹⁾에 대한 일반적 규칙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기록물 기술에서 작성자로 지명된 단체, 개인 또는 가문의 이름을 기입하는 형식을 표준화하고 기록물 작성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작성자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는 방법을 표준화하는 것이다. 이 규정에 의해 기입 형식이 표준화되는 단체, 개인 또는 가문의 이름은 기술단위의 주제가 될 수도 있다.

20) 기술을 탐색하고 식별하고 검색하는 방안이 되는 명칭, 키워드, 색인어 등

21) 기록관에서 설정한 표준화된 접근점과 그 접근점에 대해 설명해주는 정보들을 함께 기록한 목록

ISAAR(CPF)는 기록물 전거기록에 포함되는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3개 사항으로 나누어 구조화했다.

1. 전거제어사항(Authority Control Area) : 식별코드, 기록물 전거기록의 종류, 전거기입, 대등기입, 별명의 참조, 관련전거기입의 요소들로 구성되며 전거기록의 형식과 관련된 전거기입들의 연계를 규정한다.
2. 정보사항(Information Area) : 전거기입으로 선정된 단체, 개인 및 가문에 대한 관련 정보를 설명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3. 주기사항(Note Area) : 전거기록의 정보원, 전거기록 작성에 사용한 국가적 또는 국제적 규칙, 전거기록 작성일자

그리고 각각의 기술요소별로 명칭, 그 요소를 기술에 포함시키는 목적, 그 요소에 적용되는 일반 규칙, 규칙의 적용을 보여주는 사례를 설명하고 맨 뒤에는 영어와 프랑스어로 각각 단체, 개인 및 가문별로 완전하게 작성된 전거기록의 예를 부록으로 두었다.

(3) 기본 원칙

도서관 목록에서 기술부와 표목부의 역할이 구분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인 기록물의 작성배경정보를 독립시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근거를 둔다. 동일한 작성자가 생산한 기록물들이 서로 다른 기록관에 보존되어 있는 경우나 기록관과 도서관 같은 다른 정보시스템에 분산 보존되고 있는 경우 또는 작성자가 보관하고 있는 경우, 표준화된 전거기입이 되어 있다면 서로 연계시켜 검색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정보검색 효율성을 높여주고 기록관리를 편리하게 해준다.

이러한 정보시스템간 기록정보의 공유가 국경을 넘을 경우 전거기입에 관한 규칙은 국제적 관심사가 되고 이것이 ISAAR(CPF) 제정의 배경

이 된다. 예를 들어 식민지, 이민, 무역 등에 관련된 기록물의 다국적적 성격은 기록물 기술에서 배경정보의 국제적 표준화의 필요성을 잘 설명해준다.

한편, 기록물의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에서 기록물의 작성자인 단체, 개인 및 가문이 전거기입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기록관리의 오랜 전통인 출처의 원칙 때문이지만 그와 함께 특히 서양을 중심으로 뿌리깊게 확립되어 있는 저자명을 기반으로 한 전거제어라는 도서관계의 관행도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4. 기록물 기술 표준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전통적으로 기록물의 기술은 출처의 원칙과 원본질서의 원칙을 기초로 한 다계층기술, 기록물 작성자 중심의 전거기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세계 각국의 영향력 있는 국가기술기준들과 ISAD(G), ISAAR(CPF) 같은 국제기술기준도 부분적 차이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이 원칙들에 충실하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들이 두 가지 다른 방향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 현대 조직의 불안정성과 기록보존의 자동화가 그것이다.²²⁾ 정부의 구조조정이나 기업의 인수 합병 등으로 인해 조직구조가 수시로 변화하는 시대에 안정된 조직구조를 전제로 한 기존의 기술 규칙들을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생기기 쉽다. 이와 관련해서 기록관리계는 도서관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접근점의 개념을 좀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기록물검색을 위해 ISAAR(CPF)를 개발했지만

22) Michael Roper, "Archival Standards : Constraint or Catalyst",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Vol. 13. No. 2, 1992, p.110

ISAD(G)와의 연계성 면에서는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또 ISAAR(CPF)가 작성자의 이름만을 전거기입 대상으로 한정시키고 있는 것은, 기록물의 특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접근점의 개념을 너무 제한하고 있다고 본다. 현대 조직의 가변성과 함께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검색 요구를 고려할 때 접근점에 대한 새로운 표준의 제정도 필요할 것이다.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기록물의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점이다. 특히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정보시스템의 네트워크화와 웹검색이 보편화되면서 전자 기록물에 관심이 있는 기록관리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표준들이 디지털 자료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실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메타데이터 표준의 확립을 촉구했다.²³⁾ 1993년 미국의 기록관리전문가들은 Berkely Finding Aid Project를 통해 웹으로 기록물의 검색도구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표준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1995년 UCLA Berkely Library는 Encoded Archival Description(EAD)이라는 기록물 검색도구용 인코딩 기준으로 SGML을 선정했다. 그들은 검색도구와 ISAD(G)의 구조적 유사점들에 기초해서 Document Type Definition(DTD)를 개발했으며 EAD-DTD의 기초 역할을 하도록 소위 ‘앤아보협정(Ann Arbor Accord)’이라는 일련의 원칙들을 개발했다.²⁴⁾

이처럼 새로운 정보기술 환경에 대응하는 새로운 기록물 기술 표준들이 등장할 뿐 아니라 기존의 ISAD(G)와 ISAAR(CPF)도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면서 계속 보완 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ISAD(G)의 개정 주기는 5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사무국은 ICA 회원들(국가기록관 및 전문 협회)의 논평을 접수해서 1999년까지 개정판을 준비하고 있다. 곧 발표될

23) M. Hedstrom, "Descriptive Practices for Electronic Records : Deciding What is Essential and Imaging What is Possible", *Archivaria* Vol. 36, 1993, pp.53-63

24) <http://sunsite.berkeley.edu/FindingAids/EAD/>

것으로 기대되는 개정판은 전판과 비교해서 기본원칙과 개념 및 구조 등의 변화는 없을 것이며 다만 애매한 용어의 수정이나 예문의 추가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²⁵⁾

ISAD(G)와 ISAAR(CPF) 모두 국제 표준으로서 작성과정에서 세계 각국의 참여를 유도했다. 그러나 국제 표준이 그대로 한 국가의 표준으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각국마다 고유한 기록관리 관행과 문화가 존재할 뿐 아니라 언어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아직 기록물 기술에 대한 국가 표준을 갖고 있지 못한 우리로서는 ICA가 제정한 국제 표준들을 참조하면서 한국어의 구조와 기록관리 관행에 맞는 기록물 기술의 표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마이클 로퍼(Michael Roper)가 영국의 기록관리전문가협회(Society of Archivists)의 회장으로서는 1992년에 행한 연설의 일부분을 인용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한다.

“나는 기록보존 활동 전반에 대한 공통된 표준들을 채택하는 것을 지지하지만 이는 획일성을 지향해야 한다거나 모든 표준들이 모든 세세한 수준까지 규정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기록물은 그 작성자의 유일성 때문에 그리고 그 라이프사이클의 각 단계마다 달성하려는 목적들이 다르기 때문에 유일성을 갖는다. … 그러므로 기록관리가 비전문가나 심지어 기계가 자동적으로 수행해서 정형화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련의 미리 정해진 절차로 축소될 것이라고 예측하지 않는다. 언제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할 것이지만, 그 전문적 판단은 표준이 규정한 최선의 방법에 의해 정보를 얻을 것이다. 표준은 구속자켓이 되어서도 안되며 확고부동한 것이 되어서도 안되겠다. 오히려 전문적 경험과 지적 노력을 융합시키는 아말감(Amalgam)이 되어야 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25) [http://data1.archives.ca/ica/cds/isad\(g\)rev_e.html](http://data1.archives.ca/ica/cds/isad(g)rev_e.html)

위해 계속해서 모니터되고 개정되어야 한다. 우리의 전문적 방법을 개발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수단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 우리가 표준을 따르는 이유는 표준이 우리의 활동에 유용한 지침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것이 부적절하고 불완전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졌다면 협력해서 그것을 개정하고 개선하는 것이 전문직으로서의 우리의 책임이다. 표준안을 만들고 개정하는 것은 우리의 전문적 원칙과 관행을 재평가하는 기회를 준다.”²⁶⁾



26) Roper, "Archival Standards", pp.111-112

Abstract

Standardization of the Archival Description

Suh, Hye-ran

It is almost impossible to fulfill the users' information needs efficiently without any finding aids. The idiosyncrasy of archival materials had led the archivists to develop their own descriptive rules until the mid of 1980s. It was the arrival of computers and information networks that stimulated the archival community to standardize its variant descriptive practices. The primary purpose of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archival description standards is to facilitate the cooperative archival data exchange.

The Ad Hoc Commission on Descriptive Standards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adopted ISAD(G) and ISAAR(CPF) in 1993 and in 1995 respectively. ISAD(G) guides the formulation of information in each of 26 elements that may be combined to constitute the description of an archival entity. ISAAR(CPF) is to give general rules for the establishment of archival authority records in descriptions of archival documents. Histories, structures and fundamental principles of those two international archival standards have been studied in this article.

Most of the present archival description standards are based on the principle of provenance and the authority model. The instability of modern organizations and the digitalization of record keeping systems have been making the archivists to review these basic archival principles.

It is suggested that Korean archival community should attempt to draft a national archival descriptive standard suitable to the Korean archival practice and Korean language in the framework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s.